



#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5 Issue | Vol. 53

### SPECIAL POINTS OF INTEREST

- ‘2분기 경제 성장 속도 빨라져’  
— page 1-2
- 7월 공장 실적 부진 — page 2-3
- 소매업체들, 해외·전자상거래 압박 속에서도 10~15% 성장 기대  
— page 4
- 필리핀, 미국이 아세안 4개국에도 19% 관세 부과하면서 관세 우위 상실  
— page 4-5
- 대법원: PEZA 입주 기업,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대상 아냐 — page 6
- 수출업체들, 관세 영향에 따른 지원 요청 — page 7
- 10명 중 8명의 필리핀 국민, 환경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과세 원해  
— page 8-9

###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 page 9

### ‘2분기 경제 성장 속도 빨라져’

August 04, 2025 | Louella Desiderio,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경제가 소비 지출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2분기에 가속도를 내며 전 분기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전문 서비스 기업 Reyes, Tacandong & Co.의 수석 고문인 조너선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바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필리핀 경제가 2분기에 5.6%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전망치는 1분기 5.4% 성장률보다 빠르지만, 2024년 2분기 6.5% 성장률보다는 낮다.

라벨라스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선거 지출에 힘입은 소비 지출의 회복”을 꼽았다.

필리핀 유권자들은 5월 12일 지방 공직자,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에마누엘 로페즈(Emmanuel Lopez) 산토 토마스 대학교 대학원의 강의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도 2분기 5.6%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페즈는 이러한 완만한 개선세의 원인으로 정치적 우려로 인한 투자자 신뢰 약화 속에서의 투자 둔화를 꼽았다.

그는 또한 미국의 필리핀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Jonathan Ravelas, senior adviser at professional services firm Reyes, Tacandong & Co. said in a Viber message that he expects the Philippine economy to have grown by 5.6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Philstar.com / Irra Lising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상호주의 관세를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설정된 국가들에 대한 관세도 포함되었다. 이 명령은 또한 새로운 관세율의 시행일을 8월 1일에서 8월 7일로 연기했다.

필리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적용될 \*\*새로운 관세율은 19%\*\*로, 7월에 발표된 20%보다는 다소 낮지만, 4월에 계획되었던 1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관세 시행일이 8월 7일로 미뤄지면서,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제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기본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행되고 있다.

Oikonomia Advisory & Research Inc.의 이코노미스트인 레이니엘 매트 에레세(Reinielle Matt Erece)는 이메일을 통해, 2분기 GDP 성장률을 5.7%로 전망하며, 이는 수출 증가와 고용 개선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국내 경제가 탄탄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역풍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주었다”면서, “고용 증가로 인해 소비 지출도 더욱 빨라졌고, 소비는 여전히 GDP의 가장 큰 구성 요소”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당 기간 동안 수출 주문이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관세가 본격 적용되기 전 선출하 수출이 이뤄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파트(Michael Ricafort)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Cont. page 2]

## ‘2분기 경제 성장 속도 빨라져’

[Cont. from page 1]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관세 영향이 2분기 성장률을 다소 낮췄을 수는 있지만, 선거 관련 지출이 소비 지출을 뒷받침하면서 여전히 6% 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고 그는 밝혔다.

한편,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의 아시아 신흥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겔 찬코(Miguel Chanco)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의 5.4%에서 5.3%로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성장 둔화의 대부분은 국내 수요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견조한 수출이 이러한 약세를 어느 정도 상쇄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경제기획개발부(Department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장관은,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완화의 시차 효과가 이미 나타났을 것이라며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보다 다소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한 국내 수요가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 등 외부 위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를 기존 68%에서 5.56.5%로 하향 조정했다.

필리핀은행(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준 네리(Jun Neri)는, 선거 관련 지출, 낮은 인플레이션, 견조한 소비자 대출에 힘입어 2분기 경제가 5.8%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좋은 날씨로 인해 식품 수출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제품의 해외 판매는 미국 관세 인상 시행 전에 미리 선적될 것일 수 있다” 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선거 금지 기간으로 인한 정부 및 인프라 지출 둔화, 그리고 전력 판매 부진으로 나타나는 산업 및 상업 활동의 약세를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HSBC의 아세안 이코노미스트 다카나이(Dacanay)는, 소비 및 상품 수출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5.6%에 달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5월 중간선거로 인한 선거 지출이 가계 및 정부 소비를 끌어올리며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04/2462869/economy-grew-faster-pace-q2>

## 7월 공장 실적 부진

August 02,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올해 하반기를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과’로 시작했지만, 남은 기간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월 50.7에서 7월 50.9로 소폭 상승해, 완만한 실적과 생산 성장률 둔화를 나타내는 수치를 기록했다.

S&P 글로벌은 이번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이 다시 ‘성장 모멘텀’을 되찾았으며, 2025년 4월 이후 가장 강한 개선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이코노미스트 \*\*마리얌 바룩(Maryam Baluch)\*\*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3분기 첫 달의 PMI 자료는 여전히 전반적인 성과가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량과 신규 주문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확장 속도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매 활동과 고용도 완만하게 증가하며 제조업체들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생산량은 신규 주문 증가에 힘입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S&P 글로벌은, 이번 주문 증가가 미국의 관세 인상 이전에 주문을 앞당기는 ‘프론트로딩’ 현상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완제품 재고(post-production inventory)는 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Cont. page 3]

**7월 공장 실적 부진**  
[Cont. from page 2]



**CAUTIOUSLY TREADING AHEAD**

→ **Philippine Manufacturing PMI**  
(April–July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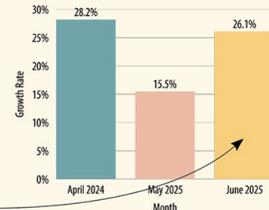


First rise in export orders in 5 months; input inflation lowest in 14 months



Fastest in 14 months; frontloading shipments ahead of US tariff hike

→ **Export Earnings Growth**  
Year-on-Year (%), April–June 2025



“PMI data from the opening month of the third quarter still painted a picture of a muted overall performance. Output and new orders continued to rise, but paces of expansion remained historically subdued. Purchasing and employment also rose at slower rates, reflecting underlying caution among manufacturers.” —Maryam Baluch, Economist at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BM Graphics: Ed Davad | Sources: S&P Global, PSA | Illustration: Cami Schefer | Dreamstime.com

이러한 배경 속에서 7월에도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개선세를 보였다. 수출 주문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S&P 글로벌은 이러한 신규 주문의 증가 속도가 ‘장기 평균치’와 비교할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은 생산 비용 측면에서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투입 비용 물가 상승률은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마리암 바룩 (Maryam Baluch)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눈에 띄게 완화되면서, 조심스러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희망적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향후 생산 수준에 대한 낙관론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기업들은 예상 수요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커져가는 긍정적 분위기는 제조업 부문에 보다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앞서 필리핀의 수출 수익은 6월에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8월 1일부터 미국 시장에 적용될 관세 인상 전에 선출하(프론트로딩)를 서두른 결과로 풀이된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수요일 발표에서 6월 수출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4월의 28.2% 증가율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다.

국내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2025년 8월부터는 성장 둔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30/june-export-earnings-rise-26-in-race-vs-august-1-tariffs/>

Image credits: **BM Graphics: Ed Davad | Sources: S&P Global, PSA | Illustration: Cami Schefer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02/muted-performance-in-july-for-factories/>

## 소매업체들, 해외·전자상거래 압박 속에서도 10~15% 성장 기대

August 04, 2025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소매업협회(PRA)는 외국 소매업체들의 경쟁 심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성장, 그리고 세계적인 무역 리스크 등 여러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10~15%의 수익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



PRA 회장 로베르토 클라우디오는 지난 주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10~15%의 성장 목표는 현실적인 범위”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소매 산업은 2026년과 2027년까지, 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클라우디오는 구체적인 수익 예측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활동 회복에 따라 개별 소매업체들이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가 필리핀 경제 전반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소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외출하고 쇼핑물은 붐비고 있지만, 평균 구매 금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클라우디오는 말했습니다.

PRA 회장 엘리스 리우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는 선거 관련 지출로 활기를 띠었지만, 최근의 기상 악화와 홍수로 인해 하반기에는 쇼핑물 방문객 수와 소비 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매업계는 여전히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가 취소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라고 리우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특히 중국 등 관세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의 수출품 전환으로 인한 간접적인 위협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최대 시장이 필리핀인 Shein(쉬인)과 같은 플랫폼이 우리 시장을 더욱 잠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리우는 말했습니다.

리우는 또한 지나친 수입품 의존은 결국 국내 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소비 행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전체 생태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리우 회장은 해외 브랜드의 진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내 소매업체들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소비자들은 매우 국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쟁하고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클라우디오는 전자상거래 구매 중 1만 페소 이하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면제하는 ‘디 미니미스 규정’ 폐지를 PRA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면제가 국내 소매업체들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쟁의 장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며, 재무부(DOF)와 통상산업부(DTI)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방안에는 인터넷 거래법 개정 또는 디 미니미스 기준 완전 폐지가 포함됩니다.

“디 미니미스 규정 폐지는 보다 지속적이고 받아들이기 쉬운 해법입니다,” 라고 클라우디오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매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retailers-eye-10-15-growth-despite-foreign-e-commerce-pressures/>

## 필리핀, 미국이 아세안 4개국에도 19% 관세 부과하면서 관세 우위 상실

August 04,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A US FLAG and a “tariffs” label are seen in this illustration taken on April 10, 2025. —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필리핀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필리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관세 특혜 마진이 줄어들고 무역 전환 기회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5개국에서 수입되는 다수 품목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는 8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필리핀수출업자총연합회(Philexport) 세르히오 오르티스-루이스 주니어 회장은 지난 주말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전부터 말해왔듯이, 20%나 19%의 관세는 우리 경쟁국들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을 경우 받아들이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5]

## 필리핀, 미국이 아세안 4개국에도 19% 관세 부과하면서 관세 우위 상실

[Cont. from page 4]

“현재 아시아에서 문제는 일본과 한국처럼 관세가 훨씬 낮은 나라들이 있다는 점이고, 이제는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다른 아세안+5 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적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19% 관세율은 미국이 이전에 위협했던 20%보다는 약간 낮지만, 지난 4월에 발표됐던 17%보다 높습니다.

필리핀과 달리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큰 폭의 관세 인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32%에서, 말레이시아는 25%에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36%에서, 베트남은 46%에서 각각 19%로 인하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는 각각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새 관세 조치가 8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마리아 크리스티나 A. 로케 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케 장관은 토요일 비즈니스월드 에 보낸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몇몇 아세안 회원국들도 19%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그에 따른 협정이나 양보 내용은 국가마다 민감성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수출 감소 우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미국의 높은 관세가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는 주변 경쟁국들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기 때문에,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기준, 미국은 필리핀산 제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수출액은 12억 2,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3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업체들은]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우리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또한 수출업체 단체가 최근 체결된 미-필 무역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본 재단(IBON Foundation)의 호세 엔리케 A. 아프리카 전무는 “필리핀은 정부가 의존하던 관세 특혜 마진과 가격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으며, 이는 열악한 제조업 인력, 인프라, 산업 생태계를 상쇄할 수단이 사라진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역내 관세율 변화로 인해 필리핀이 무역 전환이나 공급망 파트너를 찾는 미국 제조업체들로부터 혜택을 얻을 가능성도 더욱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무분별하게 자유무역협정을 더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간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조기 탈산업화가 발생했고, 경쟁하거나 시장 접근 기회를 활용할 능력을 상실한 현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라고 아프리카 전무는 강조했습니다.

전 관세위원회 위원 조지 N. 만사노는, 필리핀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미국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지만, 필리핀이 특별히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월드 에 보낸 바이버 메시지 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세안 이웃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포기했고, 그 대가로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은 겨우 1%포인트만 인하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양보를 한 셈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무장관 랄프 G. 렉토는, 자동차, 밀, 콩, 의약품 등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정부 결정으로 인해, 30억~60억 페소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케 장관은 필리핀이 최근 시행한 기업 회복 및 세계 인센티브법(CREATE Act)과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8/04/689196/phl-loses-tariff-edge-as-us-also-sets-19-rate-on-4-asean-members/>

## 대법원: PEZA 입주 기업,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대상 아나

August 05, 2025 | Joel R.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경제구역청(PEZA)에 등록된 기업들이 부가가치세(VAT) 납부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파르 디마암파오 대법관이 작성한 1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 제3부는, PEZA 등록 기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크로스보더 원칙과 목적지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크로스보더 원칙은 과세권을 가진 국가 외부에서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제구역 외부, 즉 필리핀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목적지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상품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지는 상품이 소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PEZA 등록 기업이 상품이 소비되거나 서비스가 경제구역 외부에서 제공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제로세율(zero-rating)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제도는 남용될 우려가 있다” 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PEZA에 등록된 국내 기업인 코랄 베이 니켈 코퍼레이션(Coral Bay Nickel Corporation)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사건에서 내려졌습니다. 해당 기업은 니켈 및 코발트 혼합 황화물을 제조·수출하는 업체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코랄 베이는 2012년 회계연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입력세(input VAT) 2,250만 페소에 대한 환급을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행정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환급 청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해당 기업은 조세항소법원(Court of Tax Appeals, CTA)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TA 제3부는, 경제구역 외부에서 소비된 것으로 입증된 구매에 대해서만 1,180만 페소의 입력세 환급을 인정하며 환급액을 감액해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세항소법원(CTA) 전원합의부(en banc)\*\*는 이 판결을 뒤집고, 코랄 베이(Coral Bay)가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랄 베이의 모든 구매는 제로세율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코랄 베이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SC)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코랄 베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1995년 제정된 특별경제구역법(공화국법 제7916호, 개정 포함)\*\*에 따라 PEZA 등록 기업들은 \*\*부동산세(개발업자가 소유한 토지에 한함)\*\*를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대신, 경제구역 내 모든 기업들은 총소득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면제 범위에 부가가치세(VAT)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적용하자면, 조세항소법원 전원합의부가 코랄 베이를 완전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업으로 간주하고, 경제구역 외부에서 제공된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도 제로세율을 적용한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 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구역 밖에서 소비된 만큼, 크로스보더 원칙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코랄 베이로 '수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필리핀 관세 영역 내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내 조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환급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CTA 제3부의 판결과 계산을 복원하며, 2012 과세연도 동안 제로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미사용 입력세 1,187만 3,651페소를 코랄 베이에 환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mage credits: [Mike Gonzalez via Wikimedia Commons CC BY-SA-3.0](#)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05/sc-peza-firms-not-totally-exempted-from-paying-vat/>



## 수출업체들, 관세 영향에 따른 지원 요청

August 05, 2025 | Michael Din Dela Cruz | The Manila Times

필리핀 외국바이어협회(Fobap) 회장은 8월 7일부터 발효될 미국의 새로운 관세율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출업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월요일 『The Manila Times』에 밝혔습니다.

Fobap 회장이자 필리핀수출업자총연합회(Philexport) 소속인 로버트 영(Robert Young) 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보완 조치(remedial measures)입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것으로는 세금 유예(tax holidays)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운송비 및 항만 요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외 다른 대체 시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지만, 그러한 조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영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 ‘법안 마련’, ‘기업 환경 개선’ 같은 말들은 이미 수없이 나왔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체감되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 치열한 경쟁

영 회장은 가장 큰 도전은 필리핀이 아세안 이웃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서 이들 국가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대미 수출 관세는 36%에서 19%로 인하, 인도네시아는 32%에서 19%로, 베트남은 46%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필리핀의 관세율은 기존 17%에서 오히려 19%로 인상되었습니다.

영 회장은 “이건 경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정부 보조금, 더 저렴한 인건비, 낮은 전기요금, 높은 효율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필리핀 수출업체들도 마르코스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수출업자총연합회(Philexport)의 세르히오 오르티스 루이스 주니어 회장도 이번 관세 협정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The Manila Times』와의 전화 통화에서 “19%나 20%의 관세율 자체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래 17%였는데 19%로 올랐고, 경쟁국들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필리핀 수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며, 수출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여지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경쟁국들이 우리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결국 수출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무역산업부의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장관은 정부가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업체 지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 회장은 로케 장관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현재 수출업체들에게는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담한” 예산

루이스 회장은 “무역산업부(DTI)의 예산은 경쟁국들에 비해 참담한 수준입니다.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연구, 제품 개발, 마케팅에는 거의 자금이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라며, 정부가 수출업체에 제공해야 할 지원은 말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 회장은 정부가 특히 의류 및 섬유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산업은 시장에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어들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는 인상을 주면, 바이어들은 기억하고 구매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간 부문만으로는 자체 전시회를 개최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부분입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정부 주도로 전시회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8/05/business/top-business/exporters-call-for-help-from-tariff-impact/2161896>

## 10명 중 8명의 필리핀 국민, 환경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과세 원해

August 05, 2025 | Dominique Nicole Flores | Philstar.com



Fisherfolk hold a protest in the waters of Batangas City on April 22, Earth Day to denounce the expansion of fossil gas plants and liquefied natural gas (LNG) terminal in the area.

Mara Manuel for Center for Energy, Ecology and Development

마닐라, 필리핀 — 환경 파괴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할까?

대부분의 필리핀 국민에게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재해를 유발한 기업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옥스팜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의뢰한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응답자의 84%는 산불, 홍수, 가뭄, 건강 문제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한 기업들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국민 대다수는 개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이나 정부 정책에 비해 훨씬 작다고 봤습니다.

대신, 응답자의 60%는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약 25%는 전반적인 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필리핀에 미치는 영향

필리핀은 이제 기후 극단 현상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며칠간 침수되는 홍수가 잦아지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폐기물 관리와 홍수 통제와 같은 국내 요인 외에도, 전문가들은 훨씬 더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화석연료 사용과 확대된 기후 변화를 지목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그 영향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더 강한 폭풍우를 더 자주 겪고 있으며, 계절과 관계없이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수업을 중단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필리핀은 루손과 비사야 지역 전역에 걸친 폭우로 혹독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는 연이은 태풍과 강화된 남서 몬순의 영향이었습니다.

“비싱(Bising)”, “크리싱(Crising)”, “단테(Dante)”, “에몽(Emong)” 등 네 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남서 몬순(하바갓)과 함께 필리핀 전역을 강타하면서, 254개 지방 정부가 재난 상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개의 태풍으로 인해,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찬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수업을 일주일간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 기후 정의 요구

필리핀 국민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익숙하며, 환경 감시 단체들은 이번 여론조사가 필리핀과 같은 취약 국가들이 기후 정의를 요구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필리핀 국민은 정의감이 강하며, 대다수가 기후 오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옥스팜 필리핀(Oxfam Pilipinas)의 기후 정의 프로그램 매니저 쉹 파굴라얀(Cheng Pagulayan)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세금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하며,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어야 할까요? 필리핀 국민의 약 79%는 정부가 석유 및 가스 기업에 세금을 인상할 뿐 아니라, 그 수익이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81%는 부유한 개인 및 다국적 기업들이 재정적·환경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 법적 허점을 폐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국민 5명 중 최소 3명 이상은 정부가 오염 산업 및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ont. page 9]

## 10명 중 8명의 필리핀 국민, 환경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과세 원해

[Cont. from page 8]

마르코스 대통령은 제4차 국정연설(SONA)에서야 비로소, 최근의 홍수를 막지 못한 채 수십억 페소가 투입된 홍수 통제 사업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이들 사업의 집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필리핀이 잇따른 폭풍우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나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주요 오염 기업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그린피스와 옥스팜의 의뢰로 시장조사기관 다이나타(Dynata)가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1,200명의 필리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며, 오차 범위는 ±2.83%입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headlines/climate-and-environment/2025/08/05/2463059/8-10-pinoys-want-polluting-firms-taxed-environmental-damage>

## UPCOMING EVENT



#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SEPTEMBER 25-26, 2025 | MARRIOTT GRAND BALLROOM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DR. ENRICO PARA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REGISTER

SPONSORED BY:

<p><b>PLATINUM</b></p> 	<p><b>GOLD</b></p> 	<p><b>SILVER</b></p> 	<p><b>Bronze</b></p> 
			
			

EVENT PARTNERS

											
---	---	---	---	---	---	---	---	---	---	---	---

MEDIA PARTNERS

	
---	---

[www.arangkadaphilippines.com](http://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자세한 정보와 후원에 관한 사항은 Arangkada Philippines 브리퍼, 후원 등급표, 확인서 양식이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632) 8885-73-42번으로 KCCP 사무국에 연락하시거나, [info@kccp.ph](mailto:info@kccp.ph)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Links:

[BRIEFER] <https://drive.google.com/file/d/1H4eAL1QQNvfXsRkLFk7nZ-XeptMF3YNK/view>

[SPONSORSHIP] [https://drive.google.com/file/d/1v5Kbk5-iaHTLV\\_WqTbnF5Q1k\\_Dv78u2/view](https://drive.google.com/file/d/1v5Kbk5-iaHTLV_WqTbnF5Q1k_Dv78u2/view)

[CONFIRMATION]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uqm9Xp--Ad4SWHdowgcrC\\_OGtu0y-PZCQvnwSbvt2Xuraw/viewform](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uqm9Xp--Ad4SWHdowgcrC_OGtu0y-PZCQvnwSbvt2Xuraw/viewform)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 63.3MW Calatagan Solar Farm